

인 사 말

갑오년 종단 하례를 맞아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성심으로 받겠습니다. 원로의장스님과 원로의원스님을 편안케 모시고, 청정한 수행과 자비의 실천으로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장엄한 빛으로 새해를 밝혀 나가겠습니다.

올 한해도 언제나 일선에서 근념을 다해 온 교구본사 주지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수고에 더하여 종무기관 소임자들 또한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의 지혜와 덕화가 종도들의 씩없는 정진을 이루게 하고, 불자들은 진실하고 올바른 ‘나’를 찾아 모든 이웃들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